
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		
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2021.11.8.(월) 조간</b>	<b>배포</b>	<b>2021.11.5.(금)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<b>담 당 자</b>	권 진 웅 사무관 (02-2100-2945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415-7460)		조 한 선 팀장 (02-3145-7466)

**제 목 : 무·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 
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 
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**

- 최근 무·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**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**
- 이에 따라, **합리적인 해지율, 해지환급금 설정**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  - ① 「해지율 모범기준」을 마련하여 **해지율 산출체계 개선**
  - ② 보험개발원을 통해 **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·공유 강화**
  - ③ 상품개발시 **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절차 마련**
  - ④ 무·저해지보험의 **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**
- ※ 소비자들께서는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반면에, 중도 해지시에는 **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.**

## 1 추진 배경

-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(이하 '무·저해지보험')은 '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.
- 최근에도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무·저해지 보험 판매가 지속 증가 추세\*에 있습니다.

\* 신계약건수(만건) : ('16) : 30.4 → ('18) 171.7 → ('20) 443.5 → ('21.1~8) 279.8  
 신계약비중 (%) : ('16) : 1.4 → ('18) 6.8 → ('20) 14.7 → ('21.8) 13.7

**< 일반 보험상품과 무해지상품 비교 예시 >**

구분		일반상품	무해지 상품(50%형)
환급금	납입중	100% 지급	미지급
	납입후	100% 지급	50% 지급
월보험료		63,000원	38,000원
해지 환급금	보험료 납입중	1,000만원	0원
	보험료 납입후	2,000만원	1,000만원

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대비 50%

- 그러나, 무·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,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 
 ①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②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
①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하여 "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" 건전성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.

- 상품설계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(예정해지율 ↑) 실제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.

\* 美 Penn Treaty는 장기간병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높은 예상해지율을 사용하여 파산(17)

**<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사례 >**

**① 예정해지율을 상품 특성의 고려 없이 높게 설정\***

\* OO보험사는 어린이보험이 일반보험보다 통상 해지율이 낮은데도(∴부모가 보험료 납입) 높은 해지율을 설정하여 판매

**② 환급금이 적은 상품은 계약자들이 중도 해지할 확률이 낮으므로 예정해지율을 낮게 설정해야 하나, 환급금이 많은 상품보다 예정해지율을 높게 설정**

**③ 통상 계약초기 해지율이 높고, 보험료 납입종료 직후 해지율이 상승하나 예정해지율 설정시 이를 미반영**

② 또한,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나,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(예: 해지환급률 10% 상품)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.

⇒ 이에 따라,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('21.6~9월)하여 무·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·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## 2 개선 방안

### ① 해지율 산출 · 검증 관련 기준 마련(☞ 행정지도 시행)

-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「해지율 산출기준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#### [ 해지율 산출기준 주요내용 ]

- ①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(10%, 50%) 해지율을 더 낮게(0.2%, 1%) 적용
- ②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(예: 5차년도 5%, 10차년도 2%)
- ③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(예: 납입중 최저 해지율 2%, 납입후 해지율<2%) ※ 보험료 납입부담없이 잔여보장만 남아 해지유인 적음
- ④ 다만,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(또는 증가)하므로, 납입종료 “직전”에는 해지유보효과(해지율↓), “직후”에는 해지상승효과(해지율↑) 반영

-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「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」도 마련하였습니다.

#### [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 주요내용 ]

- ①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(보험료 vs 보험금·환급금·사업비)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하여 손익 민감도분석 실시
- ② 위험률, 사업비율,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 실시
- ③ 위험률,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실시

-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,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.
- ⇒ (기대효과) 보험사가 무·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,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·판매하게 됩니다.

## ②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(☞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)

-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·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“해지율”을 반영할 수 있도록
-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·분석하여 “해지율 산업가정”, “평균해지율”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\*토록 하였습니다.

\* 주요상품의 판매기간이 짧아(‘16.7월~) 경험해지율이 가장 4년만 존재

- ⇒ (기대효과) 보험사가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·저해지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며, 무·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 ③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(☞ 시행령 개정)

- 보험개발원,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, 책임준비금 등에 더하여 “해지율”도 포함됩니다.
- 이를 통해,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「해지율 산출기준」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.
- ⇒ (기대효과) 무·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,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 ④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(☞ 시행세칙 개정)

- 상품 개발시 “동일 보장, 동일 보험료”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하였습니다.

<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(예시)>

해지환급금 수준	10%	20%	30%	40%	50%	표준형(100%)
보험료(원)	26,400	25,200	24,300	24,000	24,000	32,100

\* 해지환급금이 일정수준 이하 하락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해지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가 커져 더 높은 보험료 산출 가능

- ⇒ (기대효과)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 3 향후 일정

- ① 「해지율 산출·검증 모범규준」(행정지도)은 금년중 사전예고를 거쳐 '22년 시행\*할 예정입니다.

\*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'22.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 가능

- ② 보험업법 시행령,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, 함께하는 성장”**

## 참고1 무·저해지 보험 상품 판매현황

- 무·저해지보험은 '15.7월부터 판매되었으며, 연간 4백만건 이상 판매되고, 판매비중도 계속 증가 중

### <무·저해지보험 판매(신계약) 현황 (단위 : 천건, %)>

구 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 상
신계약건수	304	783	1,717	4,037	4,435	2,136
생 보	253	560	882	2,174	2,222	904
손 보	51	223	835	1,862	2,213	1,232
보장성중 비중	1.4	3.6	6.8	14.1	14.7	13.1
생 보	2.0	4.4	6.8	15.3	16.2	11.7
손 보	0.6	2.5	6.9	12.9	13.6	14.3

### < 회사별 무·저해지보험 판매개시 현황 >

구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손 보	-	메리츠	흥국, MG, DB, 롯데, 하나	한화, 현대, 농협	삼성, KB
		1개사	5개사	3개사	2개사
생 보	오렌지 라이프	한화, 신한, 흥국, 동양, 미래에셋, ABL, AIA, DB, DGB*, KB, KDB	삼성, 농협, 라이나, 메트라이프, 처브라이프, 푸르덴셜	교보, 교보라이프	푸본, 현대
	1개사	11개사	6개사	2개사	1개사

\* '19.11월 이후 판매중지, '21년 현재 19개 생보사 및 11개 손보사가 판매중

- 주로 건강·어린이·종신·치매보험 등이 무·저해지보험으로 판매되고 판매되는 상품종류도 다양화

### <상품종류별 무저해지보험 신계약 현황('21.상, 단위 : 천건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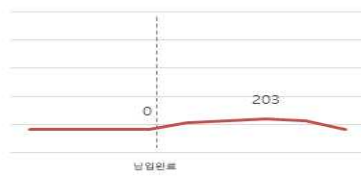
구분	종신	건강종합	어린이	치매	상해	암	합계
생 보	395	266	31	155	1	57	904
손 보	-	707	442	28	32	23	1,232
합계	394	973	472	183	33	79	2,136

## 참고2 무·저해지 보험 상품 특징

- 무·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 ~ 40% 저렴한 상품
-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금전 손실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

### <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비교 예시>

일반 보험			무해지 보험			비교
월 보험료 63,000원 (총납입보험료 1,512만원)			월 보험료 34,443원 (총납입보험료 827만원)			(보험료) 표준형 보험대비 45% 저렴
경과기간	해약환급금	환급률	경과기간	해약환급금	환급률	(환급률) 납입기간중 환급금 없고 납입기간후 표준형환급금의 10%
10년	555만원	73.4%	10년	0원	-	
20년	1,228만원	81.2%	20년	122만원	14.7%	
60년	2,048만원	135.4%	60년	203만원	24.6%	
80년	1,643만원	108.6%	80년	163만원	19.7%	
95년	15만원	0.9%	95년	0원	-	



\* 어린이보험, 남자 5세 가입, 보험료 납입기간 20년, 100세만기 기준

- 또한, 상품개발시 예상한 해지자에게 일반 보험상품보다 해지 환급금을 적게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료를 할인하였기 때문에
  - 해지율 예측 실패시에는 보험금 재원의 과부족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또는 보험사 재무리스크 발생 가능

### <예정 및 실제 해지율 차이에 따른 손익 비교>

해지율 비교	예상재원 대비	보험회사	계약자
예정 > 실제 (과소 해지)	실제재원 부족	손실발생	낮은 보험료 부담*
예정 < 실제 (과다 해지)	실제재원 과대	이익발생	높은 보험료 부담

\* 예정해지율을 높게 적용(해지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)할수록 보험료는 낮게 산출